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검찰이 어수선하다. 2013년 한 해에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가 14명이나 된다.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사태만 보더라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유진그룹 측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으로부터 10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판사와 철도협회의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집무실과 여관에서 수사차 성관계를 가진 로스를 출신 전모 검사를 비롯해서 이튼바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떡값 검사, 벤츠 여객사 사건

NGO 칼럼



홍기수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광주·전남 본부장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과 큰 상처를 딛고 지난 67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뤘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웃처럼 서로 가깝게 오고 가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 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만은 혈육이 서로 나뉘어 진 채 생사도 알 수 없는 분단의 장벽이 높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45년 분단과 1950년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했

기고



박봉순
F1 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다 읊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된 세상에 살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던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세계화(Globalization)된 세상은 기업 대 기업, 산업 대 산업, 지역 대 지역으로 경쟁 및 협상의 주체가 바뀌고 있음을 모든 분야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제 지역은 단순히 국가 하위 개념의 공간단위가 아닌 국가를 움직이는 다양한 주체중의 하나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즉, 참다운 세계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연유로 2010년부터 영암에서 열리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및 지역의 대표 브랜드 창출

농촌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 대책 시급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고향을 등지고 떠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부녀자만이 일을 하고 있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역시 사람의 일손이 그만큼 필요한 게 또한 농촌의 일이다. 고향 농촌에서는 그나마 부족한 일손을 보내주는 외국인 인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농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농가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요즘같이 인건비도

검사와 선비정신

등 검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 간부들이 집단으로 검찰 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란(檢亂)’까지 겹쳐 검찰은 바야흐로 ‘검붕(檢崩)’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검찰의 위기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상식적인 격언을 또 한 번 환기시켜 준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 이 절대 권력이 자체의 부패를 양성한 것이다.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검찰 비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 격이다. 엄정한 판단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편향을 보이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검사들도 있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검찰총장 재직 때,

정권의 수사지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한 바 있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을 던졌다고 한다. 즉 “검사들이 선비정신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충고의 요지이다. 김 전 총장이 말한 선비정신의 실체가 무엇인가? 동양고전에 ‘군자(君子), ‘유(儒), ‘사(士)’ 등으로 표현되는 선비는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선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말하는 바른 선비란, 그 뜻은 어린아이와 같으며 그 모습은 처녀와 같이하여 평생 문을 닫아걸고 독서하는 자이다. 어린아이는 비록 연약해도 그 그리워하는 것이 한결같고, 처녀는 비록 졸박(拙樸)해도 그 지키는 것이 확고하다.’(原士)” 어린아이가 한결같이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처녀가 확고히 지키려는 것은 순결일 것이다. 선비가 어린아이와 같고 처녀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나 처

녀와 같이 한결같이 그리워하는 것이 있고, 확고히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선비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도(道)와 의(義)이다. 도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지시하거나, 선비의 덕목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의이다. 선비가 의를 행동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논어’ 곳곳에 보인다. 맹자도 “인(仁)은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는 올바른 길이다”라 말했다. 의(義)는 이(利)와 반대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리(私利)를 버리고, 공의(公義)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비이다. 이 의가 바로 정의(正義)이다. 검사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이다. 그러므로 앞장 서서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선비정신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땅의 검사들이 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義士)가 되지는 못할망정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파렴치한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남북이산가족상봉, 순수한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고,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남·월북, 탈북 등으로 가족 이산은 계속됐다. 그 수는 남북한을 합해 약 1000만 명이며, 중국에 약 200만 명의 교포, 러시아에 약 40만 명의 교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을 협의했고,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뤄졌다.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시범적 사업이 논의됐다. 그리고 2000년 8월 역사적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성사됐다. 또한, 2005년 8월 15 일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남쪽 도시를 서로 연결한 화상상봉이 이뤄졌다. 2010년까지 총 18차의 방문상봉이 이뤄졌고, 그리고 2005년 8월 15일 제1차 화상상봉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15일 제7차 화상상봉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748명의 이산가족이 행복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말 터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크나큰 충격에 휩싸인지 벌써 3주년이 되었다. 전쟁 이후 6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생생한 유한한데 앞으로 10여 년만 지나면 월남한 1세대는 거의 사망한다고 보면 죽기 전에 고향 선영에 가서 그동안 불효를 용서하 시라며 조상남께 술 한잔이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의 소박한 심정일 것이다. 지난 추석 전 남북자유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 선정자 중 21명은 건강 등의 문제로 자유상봉을 포기해 최종적으로 96명으로 추려졌고,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식 등 곁에 그리던 가족상봉 재회의 기쁨을 오매불망 손 꼽아 기다렸으나 지난 9월 21일 돌연 북측의 일방적인 자유상봉 연기통보로

그들은 지금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다. 이처럼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의 고희와 및 사망으로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문제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다른 어떤 사안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이다. 이산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서신 교환도 할 수 있어야한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깝고도 먼 고향을 바라보면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야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우리 모두는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상봉이 빠른시일 내에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社 說

‘국민의 발’ 묶는 철도파업 대화로 풀어야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계획에 반발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파업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파업으로 여객 운송은 물론 화물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KTX와 통근열차는 대체인력 투입 등에 따라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6% 감속 운행하면서 시민 불편과 함께 물류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여수산단과 광양항 등의 화물열차는 총 44회 가운데 34.1%인 15회만 운행하고 있어 화학 원료와 컨테이너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레일 측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한데다 노·사·정 간 대립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철도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승인하기로 하자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조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국민의 발’이자 기간산업인 KTX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누차 천명한 바 있다. 게다가 국민들 대다수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현재 KTX의 수익을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 중인 만큼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노조 역시 철도가 국민생활이나 경제 미치는 ‘소용돌이’를 고려해 코레일 측과 머리를 맞대고, 속히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은 바로 그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횡단보도 시야 가린데도 경찰 ‘모르쇠’라니

광주시내 남구 진월동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나 전봇대 등으로 둘러싸여 등·하교 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큰 문제가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니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 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통행 차량의 70% 정도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많은 수의 초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주민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CC-TV와 과속방지턱, 조명등, 통학로 확보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지적은 본보의 현장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시설물에 가려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아파트 일대 1km 이내에는 진제초등학교와 효

덕초, 조봉초, 불로초, 진남초 등 5개 학교가 있어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초·동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거리 신호등은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황색 점멸등이어서 등하교 학생들이 차를 피해 뛰어다니는 아찔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횡단보도가 가로수, 전봇대 등 11개 시설물에 가려 광주대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시설물이 횡단보도를 가리고 있다는 내용은 모르겠으며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걸어다니는 빨간 신호등’인 어린이 교통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는다. 광주경찰청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당장 개선하길 바란다. 차체에 광주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각지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조간이나 석간 신문을 집어 들고 맨 처음 보는 코너는 어디일까? 독자들의 취향에 따라 제각각 이겠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시사만화나 만평에 닿을 것이라 생각한다. 긴 문장으로 이뤄진 신문기사보다 4칸으로 이뤄진 시사만화나 한 칸만 평은 패도난마(快刀亂麻), 즉 ‘형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르는 듯한’ 후련함을 독자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였던 1909년 우리나라 신문 최초로 1면 중앙에 시사만화를 게재했던 ‘대한민보’는 일제의 검열에 걸려 만화가 삭제되면 그 자리를 시커멓게 먹칠을 한 채 발행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5공화국 당시에 도 제대로 된 신문기사를 쓰지 못할 때 시사만화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풍자와 은유로서 가려온 곳을 긁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줘 대변해 주었다. 한마디로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권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시사만화·만평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窓)이었던 셈이다. 1983년부터 30년 간 광주일보 독자들

들을 울리고, 웃겼던 시사만화 ‘나원참’이 막을 내렸다. 뽀돌이, 미쓰 잠미, 고구마, 미나리 여사, 세상삼 천생, 개구리, 오뎅이 선생(오기토) 등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온 친근한 캐릭터였다. 김종두 화백은 ‘나원참’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이 뜨거울 때 스프링은 누를수록 튀어오른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정권의 폭력성은 오래 갈 수 없다’(6월 19일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화’(6월 23일자)라는 것을 말하는 등 서민들의 속삭여지던 그 자리를 시커멓게 먹칠을 한 채 발행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5공화국 당시에 도 제대로 된 신문기사를 쓰지 못할 때 시사만화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풍자와 은유로서 가려온 곳을 긁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줘 대변해 주었다. 한마디로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권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시사만화·만평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窓)이었던 셈이다. 1983년부터 30년 간 광주일보 독자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21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청하는 F1 팬들에게 ‘영암’은 곧 ‘Korea’를 연상케 하는 국가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영암 서킷은 F1 대회 이외에도 연중 270 일 이상 기업의 주행테스트 및 각종 모터스포츠대회로 엔진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대관 수입만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토의 끝자락, 그것도 쓸모없던 간척지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F1서킷으로 영암이 세계적 브랜드를 얻게 되기까지 치러야 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2013년 현재 F1으로 324억원을 벌어들인데 비해 505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181억원 적자인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향후 F1의 지속개최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지역마케팅을 목표로 유치한 국제대회에서 181억원의 ‘비용’은 크게 보되는데 비해 대회로 인해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애써 껴안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살펴보았으면 한다. BBC가 SQW 컨설팅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2 런던올림픽은 계획대비 무려 4배의 예산을 초과 지출하여 유치 때 호언장담하였던 흑자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런던 올림픽을 실패한 대회로 평가하는 런던시민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영국민들이 고용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 이외에도 시나브로 사그라

져 가던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올림픽을 통해 세우고자 했으며, 런던 시민들은 런던의 이미지를 세계속에 재 각인시켜 새로운 관광 전조기지로 삼으려 했던 그들 지역의 마케팅 목표를 훌륭히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런던시민의 올림픽 체접표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 얻은 지역마케팅의 ‘미래가치’란 항목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이처럼 국제대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적 성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성공한 국제대회의 공통점은 지역민이 가까이 대회준비에 참여하고 지역민 개개인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스스로 국제대회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이 F 1 기간에는 국내·외 손님들로 특수를 누리 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4년간 불모지 영암에서 세계적 지역 브랜드로 우뚝 선 F1 코리아그랑프리가 이제 기로에 있다. F1 대회를 계속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지역주민의 뜻에 달려있다. 동시에 F1 국제대회의 숨겨진 미래가치를 간파하고 사장시켜 훗날 타지역이 그 성장의 이익을 대신 가져갈 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떠안아야 할 몫이 될 것이다.

6.0%이지만 농축산업은 무려 14.8%로 두 배가 넘었다. 그런데 농업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이 금지되자 아반도주하는 것이다. 결국 일부 농가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니 농촌은 답답하기만 하다. 농민들은 농촌을 이탈하거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어서 난감하다. 그러니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